

집행부 '수련고시위원회 신설' 통과 지부·지부장협의회 상정안은 모두 부결

지난 4월 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본격적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실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련고시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집행부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회장단 선출 방식 개선, 대의원총회의 분과위원회 설치, 지부장협의회 업무범위 구체적인 명시 등 지부와 지부장협의회에서 상정한 정관개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이날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부산지부가 부회장 런닝메이트 구성시 학연과 지연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선거에서 회장과 수석부회장만 출마하고 나머지는 선출이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개정안은 찬반투표에서 23명의 찬성을 얻는데 그쳐 부결됐다.

또한 부산지부가 현행 대의원총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결산분과, 토의·안건분과, 법령·정관분과 등

분과위원회를 두자는 안도 출석대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지부장협의회와 인천지부가 공동으로 상정한 지부회칙 인준시 지부의 임원 선출 및 구성, 회계연도, 치협 정관에 나와있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기타 필요한 경우 협회의 인준을 받은 후 별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단서조항 신설안도 찬반토론을 벌인 뒤 표결한 결과 부결됐다.

지부장협의회가 협회회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시하자는 개정안은 정관에 명시하기보다 별도의 규정을 두기로 하는 수정개정안이 통과됐다.

한편 치협 집행부가 치과전문의를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행 학술위원회를 학술위원회와 수련고시위원회로 분리해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정관개정안은 무난하게 통과됐다.

안성모 후보 제26대 협회장 당선 결선투표서 108표 획득...92표 정 후보에 16표차 승리

제26대 치협 회장에 기호 3번 안성모 후보가 당선됐다.

또 대의원 총회의장과 부의장에는 박종수 전 치협 감사와 김계중 대의원이 선출됐다.

지난 4월 23일 치협회관에서 열린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기호 3번 안성모 후보는 결선 2차 투표에서 108표를 획득, 92표 확보에 그친 기호 2번 정재규 후보에 16표 차로 승리했다. 기호 1번 김광식 후보, 기호 2번 정재규 후보, 기호 3번 안성모 후보로 3파전으로 치러진 이날 회장단 선거 1차 투표에서는 안 후보가 79표, 정 후보가 76표, 김 후보는 45표를 획득했다. 세 후보 모두 과반수 득표에 실패함에 따라 3위를 기록한 김 후보가 탈락하고 안 후보와 정 후보간의 2차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결선투표 결과 안 후보는 29표를 추가해 과반수를 넘는 108표를 최종획득, 16표 추가 확보에 그친 정 후보에 16표차로 앞서 결국 안 후보가 제26대 치협 회장에 당선됐다.

이날 대의원 총회 참석 대의원은 총 201명 중 1명이 불참, 200명이 회장단 선거에 참여했다.

안성모 회장당선자는 이날 당선인사를 통해 "왜 이렇게 막중하고 어려운 일을 선택했는지 지금 후회를 느낀다"면서 "전임 정 회장님은 회무와 정치력이 뛰어난 분이어서 존경한다. 앞으로 명예 회장으로서 정치적 앞날을 서포트 하겠다"고 밝혔다. 안 당선자는 또 "앞으로 치협 회무를 투명하

게 전개할 것"이며 "4명의 회장이 같이 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이날 런닝 메이트로 부회장 후보로 나선 이수구, 김동기, 김재영 부회장 후보와 확실한 팀워크를 이뤄 치협을 이끌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어려운 길은 3년만 하고자 한다. 3년간만 봉사하겠다"고 거듭 강조, 협회장 단임 의지를 천명했다.

협회장 재선에 도전했던 정 후보는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3년간 열심히 일했던 노하우와 인맥 등이 치과계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대의원총회 의장과 부의장에는 전국지부장협의회 추천을 받은 박종수 전 치협 감사와 서울지부 김계중 대의원이 각각 대의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박 대의원 총회 의장 당선자는 "부족한 저에게 2만2천명 회원을 대표하는 의장선출 영광이 주어져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활기차고 발전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 당선자도 "박 의장 당선자와는 치대 동기 동창으로 뜻을 같이하는 친구"라면서 "잘 보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6대 집행부 회무를 감독할 치협 감사에는 김우성 전 치협 감사가 재 선출됐으며 염정배 전 부산지부 회장, 김명수 전 대전지부 회장이 각각 뺄배 3년간 치협 회무 전 반을 파악, 회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됐다.

치의학회 신임회장에 안창영 회장 선출 개원의 최초 당연직 치협 학술담당 부회장 취임

안창영 대한치과턱관절기능교합학회 회장이 제2대 치의학 회장으로 당선됐다.

치의학회는 지난 4월 15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각 인 준 분과학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과학회 협의회를 열어 경선을 갖고 안창영 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치의학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변영남·이하 선관위) 주관 하에 열린 이날 선거에서 안 신임회장은 기호1번 김경 남 연세치대 교수, 기호3번 김수남 원광치대 교수에 득표수가 앞서 새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안 회장은 치의학회장에 당선된 동시에 개원의로 는 최초로 당연직인 치협 학술 담당 부회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특히 1명을 제외한 전 분과학회 회장들이 참석, 투표권을 행사한 이날 선거는 각 후보의 정견발표 후 1차 투표에서 과반수(11표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차 투표까지 가

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치러졌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각 후보의 1, 2차 투표 득표수는 공 개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2차 투표에서 회장에 최종 당선된 안 회장은 “정견 발표 시 밝힌 추진사항을 실천하겠다. 같이 후보로 나선 두 분의 공약 중 수용할 것은 수용하겠다”며 “앞으로 한 달 후 에 치의학회 워크숍을 열어 인턴제 폐지 등 주요현안에 대 해 논의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안 회장은 주요 추진 사항으로 ▲치협으로부터 독립 ▲치 의학회의 모든 학술대회 관장 ▲치협 대의원 자격 확보 ▲ 기초치의학 발전 방안 강구 등 치의학회의 대내외적인 역할 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치의학회 신임 감사로는 변영남 현 감사, 신재 원 대한구강해부학회 회장이 각각 선임됐다.

암 등 고액중증환자에 복지부 건보 재정 집중 투입 희귀·만성질환자 필수약품도 급여 확대

보건복지부는 암과 같은 고액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경감 하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지난 4월 27일 브리핑에서 “올해 3 월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혈병을 포함한 각종 암, 심장기형, 뇌질환 등의 환자부담이 높게 나타났다”며 “이러한 질환과 관련된 진료는 최대한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며, 고액질환군에 대한 우선 순위, 소요 재정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이렇게 되면 환자 1인당 진료비 부담은 지금 보다 30~50%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을 상반기 중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 내용 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혁신TF’를 운영해 고액중증질환 군에 대한 건강보험혜택 확대 방안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 며, 빠르면 오는 6월경 공청회 등을 거쳐 대상 상병을 확정

하고, 구체적 부담경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해년도에 급여확대 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던 장기이식 보험 급여확대, 얼굴화상 등 고액치 료비 급여확대 등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 혔다.

또한 보험은 적용되나 적용기준이 엄격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항목들도 일제 정비해 급여기준을 합리화 하고, 보험이 재정을 부담하지 않고 가격만 정하고 있는 전 액본인부담항목(100/100)도 최대한 급여전환을 추진할 방침 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만성 질환인 중증의 강 직성 척추염 및 만성 신부전 환자에 투여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5월 10일을 기준으로 대폭 확대기로 결 정했다.